

## 6·25가 우리 복식에 미친 영향

### —양장의 대중화—

김 순 심

한양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The Effect of the Korean War on the Korean Costume

Kim, Soon Shim

Department of Clothing & Textiles, Han Yang University

### I. 서 론

의복은 개인의 외모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와 사회의 문화를 반영하고, 그 개인이 속하고 있는 사회의 단면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따라서, 복식의 사회적 의미의 중요성을 2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개인을 중심으로 할때 복식이란 개인의 특성, 사회경제적 수준, 가치관, 성, 직업교육 정도등을 잘 나타내주므로 사회조직 내에서의 한 구성원으로서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둘째, 사회적 배경을 중심으로 생각할때 사회의 외부적 사건이나 그 시대의 상황이 복식에 큰 영향을 주므로 복식이란 그 시대의 사회적 단면을 잘 나타내 준다고 생각된다. 어떠한 역사도 그러하지만 복식의 역사도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등을 통하여 고찰되는 인류 역사의 일환으로서 보아야 하며 의복이 착용된 시대의 역사적 환경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우리 근세사에서 6.25는 역사적 대사건으로 사회, 경제, 정치, 예술, 문화에 여러가지 영향을 끼쳤으며, 변화를 일으켰다. 6.25로 인하여 변화된 사회 문화적 요소들이 복식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으며, 그로 인하여 의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특히, 양장의 대중화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함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6.25를 분기점으로 하여 양장이 대중화되고 유행

되게 된 것을 밝히기 위하여 1950년대 복식현상은 주로 경향신문을 조사하였으며, 사회문화적 변동은 문헌을 참고로 하여 그 시대의 복식의 변화와 사회문화적 변화와의 관계를 연구하여 복식의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문화 전파

문화전파란 하나의 민족집단 또는 한 지역에서 다른 집단 또는 지역으로 문화가 확산되는 과정으로<sup>42)</sup> 한 사회의 문화요소들이 다른 사회로 전해져서 그 사회의 문화과정에 통합되어 정착되는 현상을 말한다.

문화가 전파되는 것은 두 문화의 접촉에 의해서인데 만약 상이한 두 사회의 성원들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제1차적인 혹은 직접적인 접촉관계에 들어갈때 그 결과로 어느 한쪽 또는 양쪽 사회의 문화에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문화접변(acculturation)이라고 한다<sup>18)</sup>.

Kroeber는 두 문화사이에 유사성이 증대되는 변동과정을 문화접변이라고 정의하였고<sup>39)</sup> Moore는 전파를 위해서는 접촉이 선행되어야 하고 전쟁이나 대규모 인구이동, 경제적인 교역 등에 의해서 영향력이 커진다고 하였다<sup>40)</sup>

## 2. 문화의 수용

사회에 전파되기 시작한 외래의 문화나 혁신자에 의해 창조되거나 발견된 것들이 일단 사회에 받아들여질 때 이것을 문화의 수용이라고 한다.

Murdock은<sup>1)</sup> 이것을 문화차용(文化借用)이라고 하였으며 모방을 통한 학습 행위로 문화변동의 보편적인 계기가 되고 있으나 그것도 차용하는 측의 욕구에 따르고 받아들이는 선택기준이 있으며 보상(補償)이 많을수록 차용이 급속해진다고 하였다.

## 3. 사회변화와 의복의 변화

Kroeber는<sup>36)</sup> 전쟁, 혁명, 사회적 폭동을 둘러싼 정치 사회적 긴장이 기본적인 옷차림을 어지럽히는 fashion이 나타나게끔 한다고 하였으며 James-Laver는 fashion 변화의 동기는 인간의 이성과 사회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확실한 상황으로 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Mandel Baum<sup>39)</sup>은 만일 갑자기 여성의 이브닝드레스로 타이트한 바지의 형태를 취하거나, 현재의 노출의 적당한 기준이 흐트러진다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관찰자들은 그것을 사회의 주요한 대폭동의 증거로 간주해도 좋다고 말하였으며 Kroeber<sup>38)</sup>는 의복의 역사와 각 시대의 사회적 사건과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패션의 변동은 그 사회내에 일어나는 사회적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가 됨을 알 수 있는데 엄격하게 조직되고 변하지 않는 신분제도가 유지되는 극동문화권에서는 한 세기에서 다음 세기에 걸쳐 의복 스타일의 혁신을 거의 볼 수 없으며, 반대로 사회가 긴장, 동요, 흥분상태에 있는 역사적 시기에는 기본 패턴에서 이탈된 패션의 강한 변화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한 예는 김<sup>20)</sup>의 연구에서 처럼 불란서 혁명과 같이 정치적, 사회적 변혁기에 일어난 복식의 급격한 변화등을 들 수 있다.

# III. 본 론

## 1. 6.25로 인한 사회·문화 변동

### 1) 사회의식

인명살상과 재산손실로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주었다. 찰라주의와 허무주의가 팽배하였으며 기존 윤리와 도덕이 파괴되고 가치관, 생활방식, 사회의식을 변질시켰다.

### 2) 서구문명의 접변과 친미의식<sup>31)</sup>

인적 물적교류를 가속화시켜 많은 나라의 문물과 문화가 쏟아져 들어왔으며, 특히 전쟁후의 미국의 경제원조와 차관에 의존하는 가운데 친미의식이 조성되었다.

### 3) 도시화

일종의 대민족이동인 북한주민의 남하피난민의 도시지향적 정착과, 북괴군과 공비의 만행을 피하기 위한 농·어촌 주민의 도시로의 이동과 전쟁복구가 도시에 집중되어 자연 도시화 현상이 일어났다.

### 4) 민주의식

전란의 평균화된 고통은 신분적이고 차별적인 사회제도를 깨뜨리고,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 의식이 싹트게 되었다.

### 5) 전통문화의 파괴와 대중문화의 혼란

6.25 동란을 거치면서 외국과의 긴밀한 접촉으로 우리사회에는 엄청난 외래문화 요소들이 밀어닥쳐 전통적 양식과 문화기반을 흔들여 놓고<sup>27)</sup> 서양문물의 모델이 그 당시의 사회문화의 주된 세계관을 이루었다. 이러한 외래문화 요소들의 범람으로 전통문화요소들은 새로운 조건에 재적응 또는 변모하거나, 그중 많은 부분은 빠른 속도로 사라져 갔다.

### 6) 산업구조

6.25이후 미국의 경제원조와 UNKRA 원조자금으로 방직업이 호황을 누리었고 대기업으로 성장하였다<sup>19)</sup>. 제일모직<sup>20)</sup>, 삼호방직, 대전방직, 조선방직 등이 있었다<sup>22)</sup>.

### 7) 교육인구의 증가

6.25이후 정부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미국의 교육사상, 교육방법론 등을 모방하여 교육기회의 균

동화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초등교육의 의무제와 무상제를 실시하므로써 교육인구가 증가되었고, 학력을 인간성장의 지표로 인식하는 가치관이 형성되므로써 교육인구가 증가되었다<sup>32)</sup>.

## 2. 1950년대의 복식현상

1950년대의 복식을 살펴 볼 수 있는 문헌이나 잡지의 발행이 많지 않았고 또한 보관되어 있는 것도 많지 않았으므로 1953년에서 1959년 사이의 경향신문을 조사하여 여러기사들을 종합해 본 결과 의료(衣料)로서는 천연섬유와 면의 사용이 많았는데 그것은 미국원조로 도입되는 풍부한 원료공급에 힘입어 면방직 공장이 가동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외 모시, 베, 견등이 가내 수공업에 의해 각자정 자체내의 수요를 충족하는 정도였으나 1953년에 나일론이 처음으로 수입되자<sup>30)</sup> 질기고 손질이 간단하다는 장점으로 셔츠나 블라우스, 원피스등의 양장복지로의 인기가 높았었다<sup>2,3,4)</sup>.

이 당시의 의료(衣料)는 우리 자체내의 생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로 미국의 원조 물자내지는 미국계통에서 유입된 군피복류(軍被服類)와 담요류, 낙하산지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프린트가 된 포폴린등의 면직물의 생산도 많아졌고 국산면과 모직물, 엑스란등의 합성섬유도 생산되어 양장지로 사용되었었다. 낡은 옷을 이용하여 고쳐 입는 것에 대한 기사가 많은 것으로<sup>5)</sup> 미루어 보아 피복지의 부족현상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디자인은 하이웨스트의 절개선과 플레어를 이용한 스타일, A라인스타일 등이 유행하다 맘보 스타일의 바지와 타이트 스커트, no-sleeve의 원피스, 블라우스등이 유행하였으며<sup>6,7,8,9,10,21,25)</sup> 1954년에 처음으로 패션쇼가 개최되었으며 양장의 역사와 보급이 짧으니만치 양재학교 졸업후의 취직등은 장래성 있는 여성의 일이라고 피력하는 기사도 눈에 띄었다<sup>11)</sup>. 핸드백과 하이힐에 관한 기사가 많았으며 양장 착용자에 대해서 멋장이, 신여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였고<sup>12,13,14)</sup> 체형, 나이에 맞는 양장착용으로 지성미, 교양미를 표현하도록 하자는 기사가 많았으며<sup>15,16)</sup> 젊은층에서는 양장을, 중년층에서는 한복을 착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sup>17)</sup>. 1950년대의

급속한 양장의 보급과 일반인들의 관심이 고조된 것에 대해서 이<sup>26)</sup>도 1954~1963년을 서구화 촉구기로 양복이 일상적인 생활양식으로 지위를 굳혔다고 하였으며, 백<sup>24)</sup>도 6.25사변으로 인한 극한적 상황을 거치면서 생활에 곤란을 느낀 여성들이 직업을 갖는 사회진출이 있고 젊은 층에서는 대중적으로 입던 한복대신 활동하기 간편한 스타일의 양장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 3. 사회, 문화적 변화가 의복에 미친 영향

### 1) 서구문화의 접촉과 전통문화의 파괴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구분하여 인식하는 기준에서 한국인은 미국이 가장 풍요하고 강대한 나라, 가장 민주화되고, 평등한 사회라는 미국관을 형성하였고, 6.25이후의 기아선상을 헤어나지 못한 상태에서의 외국문화의 문화의식이나 문화접촉은 전통적인 문화의 자율성을 해체하였고, 외국문화의 모방은 쉽게 이루어졌다. 또한 전쟁후에 팽배한 향락위주의 풍조는 전통문화를 청산해버려야 할 거 추장스러운 유산정도로 느껴지게 하였다.

Horn은 다른 나라의 언어는 배우기 어려운 반면 의복의 외향적 상징은 한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쉽게 전달된다<sup>37)</sup>고 하였으며 모방은 새로운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서 새로운 행위유형을 생성시키는 데에 제일 먼저 취해지는 것이라고 Linton이<sup>41)</sup> 말한 것처럼 한때 고립된 우리 사회가 전쟁으로 인해 외국 문화와의 접촉, 교류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졌으며 문화의 전파가 용이하게 되었고, 우리가 찬양하고 부러워한 미국 사회와 미국인들의 생활방식을 모방하고 그들의 의복문화를 모방하려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수용되게 되었으며, 구호물자들을 통한 의복문화의 전파가 쉽게 일어날 수 있었다. 특히 젊은 세대에 있어서 서구의 의복을 채택하려는 열망이 강하였으며, 한복을 버리는 것은 구시대의 가치관을 버리는 것과 동시에 왔다. 점점 한복은 사회변화의 통로에서 밀려나서 인습의 형태로 간신히 존재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전통문화의 붕괴로 인한 아노미(Anomie) 상황에서 의복의 문화접촉, 문화차용은 그 속도가 빠를 수

밖에 없었고 그러한 문화접촉에 의해서 전파된 양장은 선택적 비판적으로 수용되었다기 보다는 모방에 급급한 것이었다.

## 2) 교육의 영향

6.25이후 초등교육 의무제와 무상제, 그리고 고등교육인구의 증가로 널리 보급된 교육은 양장의 일반화를 촉진하였다. 교육은 경험의 새로운 영역에 문호를 개방하고 더 많은 fashionable한 외관에 흥미와 욕구를 증가시킨다.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은 새롭고 알려지지 않은 두려움을 전파하는데 도움이 되며 관습에 뿌리박힌 금기사항으로 부터 사람들은 자유롭게 해주었으며, 교육받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현저해지고,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하는 여성의 수가 늘어남으로써 활동적인 의복에 대한 요구도는 높아졌으리라고 본다. 의복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교육받은이들은 자신들의 판단력에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새로운 패션, 즉 양장에 대한 두려움이 해소되었고, 패션의 선택폭은 넓어져 양장의 보급속도는 빨라지게 되었다. 또한 교복착용은 서양의 의복을 수용하는 것을 더욱 쉽게 해주었다고 사료된다.

## 3) 도시화의 영향

Blumer는 오랜 사용을 통하여 승인되어져 왔고 확립된 것을 고수하는 원시종족, 농업사회, Caste 사회와 같은 정착된 사회에서는 패션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sup>35)</sup>.

Hurlock<sup>34)</sup>도 조그마한 공동사회에서는 인구의 변화가 거의 없어 패션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모든 사람들은 서로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패션이 개인의 결점을 보충해 주지도 구별되는 특징을 주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전의 농촌 중심의 우리사회에서는 강한 관습과 전통으로 우리 특유의 패션인 한복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격식과 유풍에 뿌리 박혀 입던 옷을 고수하고 새로운 패션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았다. 그러나 6.25이후 민족의 대이동으로 인하여 도시화와 인구이동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사회의 그룹은 점점 커졌으며 사회구조는 재조직 되어져서 도시주민들

은 과거와는 급격하게 달라진 사회환경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생활양식과 가치관도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도시생활에서의 빠른 이동, 기민성으로 활동적인 의복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의복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의복의 영향력은 이전의 농경사회의 친숙한 사람들 사이에서 보다 더욱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구분되고자, 돋보이고자,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새로운 패션인 양장이 해주었으며 그런 점에 대한 기대로 양장의 보급이 빨리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 4) 섬유산업의 영향

1764년에 James Hargreaves가 방적기를 발명하고 1864년에 Howe가 재봉틀 특허권을 취득하고, 그 이후 가죽을 박는 재봉틀, 의복재단기계, 부츠의 리벳을 박기 위한 기계들이 발명되어 그러한 기계를 사용하므로써 의복생산이 증가되고, 의복제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듯이 6.25 이후의 정부가 주력해 온 섬유산업으로 먼, 소모사등이 방직되었고 나일론이 사용되므로써 여성들은 귀찮은 의복손질에서 간편한 피복지를 선호하게 되었으며 점점 풍부해지는 피복지와 재봉틀의 보급으로 패션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게 되었고, 자아표현의 욕구도 커지므로써 양장의 일반화는 가속화 되어졌다.

## 5) 미의식의 변화와 도덕성의 변화

인간의 미의식은 문명의 진보와 더불어 발달되어 왔으며 시대에 따라서 사회환경에 따라서 민족, 문화, 개인에 따라서 다르다. 6.25 이후의 우리의 사회상이 미의식에 반영되어 전통이나 질서보다는 모험과 창조를 소극적이며 절제와 자기 억제보다는 적극적이며 정열과 자기긍정을 강조하는 동적사회로 바뀌었으며, 개성미 강한 자기표현의 미, 노출미, 기능적인 미, 동적인 미를 추구하려 하였다. 고유한 한복의 정적이고 단정하고 고상, 우아한 것에서<sup>33)</sup> 양장의 노출미, 기능적이고, 동적이고, 강한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본다.

한복의 디자인에 있어서 기본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약간의 색깔만을 바꿀 수 있는 제약성이 있는 반면 다양한 형과 디자인, 여유분에 따른 실루엣의 변화, detail의 변화등에 의한 양장의 다양성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서양복식사를 살펴보면 도덕성이 우세한 중세의 상당기간 동안 서양복에는 금욕주의의 뚜렷한 현상이 나타나 신체의 부분을 억압하고 은폐하였으며 노출을 꺼리고 의복에의 장식을 기피하였던 예를 볼 수 있다.

한복은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예의를 숭상하고 정숙, 도덕성을 강조하던 시대의 의복으로 그러한 정신의 표상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6.25로 인한 가치관의 변동, 도덕성의 변질, 허무주의, 향락주의의 퇴폐적인 풍조에서 노출은 정당화, 보편화되었다. 가슴을 조이고, 신체를 덮는 엄격함에서 벗어나 에로틱한 스타일을 택하게 되었으며, 도덕적 요소는 상당히 완화되었고, 지나친 노출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전쟁후의 억눌림에 대한 보상, 공포에서 벗어남, 승리의 안도감, 전쟁의 지루하고 불안함에서 벗어남 등의 반작용으로 새롭고 신기한 색다른 양장문화를 수용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 6) 양장의 수용과 거부

패션은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세계의 일부인 어떤 영역에서 새로운, 같은 성질의 사회적 형태를 위하여 다다른 한 과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패션과정은 혁신과 선택이라는 2개의 중요한 단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성이 높은 사람이 새로운 것을 수용하게 되면, 그 사회내에서의 전파는 빠르고 매우 쉬워진다<sup>49)</sup>.

50년대의 우리나라에서 서양복의 leader들은 교복을 착용한 중·고등학생에서부터, 대학생, 교사, 교수, 직장여성들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로의 전달효과의 영향력이 컸다고 생각된다.

승인을 받고 싶은 욕구의 수단으로 옷을 사용하며, 다른 젊은이가 입는 것에 대한 동조욕구가 강하여 동조하므로서 일치하려 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고 패션에 가장 민감하고, 자기보다 사회적 우월성을 가진자를 모방하려는 욕구가

강한 젊은이들은 더 쉽게 새로운 양장문화를 수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급격한 패션의 변화는 나이먹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문화충격이었다. 그러한 급격한 변화가 기존의 가치에 항거하려는 욕망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결과로 느껴져서 두려웠고,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과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공포는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를 억제시켰으며 너무 급격한 문화충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선택적 배제가 이루어졌으며 오랜시간에 걸쳐, 조금씩 적은 분량으로 새것을 취하고, 새로운 fashion을 갑자기 착용하는 위험스러운 것을 하려하지 않았다. 나이든 이들에게 새로운 fashion인 양장문화는 전통을 저버리고 선조들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졌으며 젊은이들의 새로운 패션의 추구를 역행문화, 반문화로 취급하였고 정상적인 일로 보려하지 않았으나 젊은이들은 서구 형태의 새로운 의복을 받아들인 이래 조상들의 패션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기꺼워 하지 않았고 종래에도 항상 해왔던 옷차림을 미래에도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야 한다는데 반발을 일으켰으며 흥미를 끌지 못하였다. 결국 이 시대의 fashion 양상은 세대간의 차이나는 집합적 취향으로 인한 집단적 선택에 의해서 일상생활복으로서 new fashion인 양장과 old fashion인 한복이 둘다 양존하고 있었다.

#### 7) 양장의 일반화

새로운 행동양식이나 사고방식등이 사회성원간에 보급되고 그 결과로 생기는 사회현상을 유행이라 한다. 유행은 몇개의 단계를 거쳐 전개된다. 새로운 양식을 사회성원이 지각하는 단계, 검증시행기, 유행의 보급기, 소멸, 종식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유행이 이 시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고 사람들의 행동양식이나 사고방식속에 정착되는 것도 있다. 이런 유행을 유행의 관습화 유행의 상용화라 부른다<sup>28)</sup>. 이렇게 한번 성립된 유행이 상용화되어 사회의 기본적 양식으로 정착하면 그것이 곧 관습이 되는 경우도 있다.

1950년대 양장은 하나의 유행으로 시작되었다가 기존의 관습인 한복을 물리치고 새로운 유행인 양장이 관습화 상용화되어 정착되어 오늘날 거의 새

로운 관습이 되었다.

#### IV. 결 론

패션변화의 속도는 각기 다른 나라의 역사속에서 다른 시대에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리사회에서 6.25라는 전쟁은 많은 사회적 변동을 일으켜서 사회의 식의 변화, 다른 문화와의 접촉과 수용, 이식의 용이함, 미의식과 도덕성의 변화, 교육인구의 증가, 도시화, 산업의 발달이 일어났다. 그러한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우리의 복식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6.25 전쟁으로 인해 외국 문화의 전파가 용이하게 되고 특히 구호물자들을 통한 의복문화의 접촉으로 양장의 수용속도가 빨랐다.

2. 외국문화에 대한 선호사상이 증대됨으로써 양장 문화의 모방속도가 빨랐다.

3. 교육이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시키고 관습으로 부터의 탈피 가능성을 증가시킴으로써 패션의 선택폭을 넓혀 주었고, 교복 착용으로 더욱 쉽게 서양 의복을 수용할 수 있었다.

4. 도시화로 인하여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데 의복은 다른 사람과의 구별, 과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충족의 역할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으로 해서 새로운 패션인 양장의 대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5. 6.25 이후의 복구사업에 대한 외국의 원조로 섬유산업이 발전하게 되었고 재봉틀 보급이 이루어져서 패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6. 이전의 전통과 질서, 예의, 정숙, 도덕을 숭상하던 사회의 가치관이 전쟁으로 인하여 기능적이고 동적이며 강한 자기표현의 미, 노출미로의 미의식의 변화가 일어나 전통의복보다 새로운 의복에의 선호도가 높아졌다.

7.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강한 젊은이들은 양장을 쉽게 수용하게 되었으나 나이든 이들은 전통문화를 고수하려 함으로써 한복을 계속 착용하여 둘 다 양존하고 있었다.

8. 양장은 하나의 유행으로 시작했으나 그 유행이 소멸되지 않고 정착됨으로써 하나의 관습으로 남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복식은 그 시대상을 잘 반영해 주는 거울이고 사회문화의 유산으로 여러가지 사회문화적 현상이 복식에 반영되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 6.25로 인하여 변화하게 된 여러가지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양장문화의 전파와 수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본 패턴인 한복에서 이탈된 양장으로의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복과 양장은 각각 하나의 패션으로서 새로운 패션인 양장이 사멸되지 않고 정착되고 일반화되어 하나의 관습으로 남아있게 됨으로써 양장의 일반화형 유행이 성립되었고 양장문화는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 참고문헌

1. 고영복, 사회학요론, 민조사, 1965, p.84
2. 경향신문, 1955. 9. 30 「화확섬유로 된 의복, 이홍수」
3. < 1955. 6. 26 「여름옷감 이야기, 장명옥」
4. < 1955, 7. 9 「비옷의 선택과 손질」
5. < 1957, 4. 20 「얇은 옷을 이용하자」
6. < 1959, 1. 3 여성란
7. < 1956, 8. 19 「체형에 맞는 디자인」
8. < 1958, 4. 26 연재소설 컷
9. < 1958, 4. 8 <
10. < 1956, 9. 11 <
11. 경향신문, 1959, 3. 16 「양재 9개월이면 전과목울」
12. < 1955, 8. 1 「백구두와 스코올, 전숙희」
13. < 1957, 3. 31 「女聲」
14. < 1958, 4. 11 「女聲」
15. < 1956, 2. 20 「女聲」
16. < 1957, 3. 11 「女聲」
17. < 1958, 4. 17 「중년부인과 젊은이의 머리 형태」
18. 김광익, 문화인류학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p. 405
19. 김영봉, 한국의 교육과 경제발전, 1945~1975, 한국개발연구원 1980. p.27

20. 김인숙, 불란서 혁명기 의생활에 나타난 특성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19권 4호, 1981. 91-8
21. 김혜경, "사진으로 본 의상변천 60년", 여성동아, 1976년, 11월호
22. 대한방직협회편, 섬유년보, 1955년 p.5
23. 박경자, 임순영, 한국의복구성, 수학사, 1976
24. 백영자, 한국의 복식, p.494
25. 의류직물연구, 이대가정대 의류직물학과 8호, 1978, p45~46
26. 이경자, 한국의 복식, 한국문화재 보호협회, p.477
27. 이문웅, 비교문화론적 관점에서 본 미풍양속, 정신문화. Vol. 14, 1982. p.21
28. 이상희, 유행에 대한 연구, 확산이론을 중심으로 연세행정논총 10집, 1983. pp.213-240.
29. 제일모직공업 십년사, 제일모직 p.250
30. 코오롱 20년사, 주식회사 코오롱, 1977, p.72
31. 한국현대사회의사의 재구성 세계평화 교수협의회, 일념 p.65
32. 한국 현대사회의사의 재구성,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일념, p.376
33. David Mandel Baum, The interplay of conformity and diversity, N. Y., McGraw-Hill, 1963, p.248
34. Elizabeth, B. Hurlock, The Psychology of dress, Arno Press, 1976, p.5
35. Herbert G. Blumer, Fashio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pp.341-345.
36. Horn, M. J. and Gurel, L. M.,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uffinil Co., 1981, p.106
37. Horn, M. J., op. cit., p.104
38. Jane Richardson & A. L. Kroeber, Three centuries of women's dress fashions, A quantiative analysis, Anthropological Records 5, No.2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40, pp.111~153.
39. Lauer, R. H., 정근식, 김해식 역, 사회변동의 이론과 전망, 한울, 1985. 365쪽
40. Moore, W. E., Social Change, Englewood Cliffs, N. Y., Prentice-Hall, 1974, p.90
41. 랄프 린튼, 전경수 역, 문화와 인성, 현음사, pp.93-5.
42. Robert Heine-Geldern, Cultural diffusio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Vol. 4, p.169
43. Rogers, E. M., Diffusion of Innovations, Free Pree, N. Y., 1962, p.13